

Where Fashion Meets Coffee

패션 브랜드의 카페

최근 패션 브랜드들이 단순히 옷을 파는 공간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경험하게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브랜드에서 직접 운영하는 카페의 등장이다. 커피 한 잔을 즐기러 방문한 고객이 자연스럽게 브랜드의 세계관과 제품을 경험하게 되는 이 공간들은 '체험형 브랜드'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SNS를 통해 카페 공간의 이미지가 공유되면서 나타나는 마케팅 효과도 어마어마하다. 패션과 커피에 관심이 있다면 가볼 만한, 패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듬뿍 담긴 카페를 소개한다.

ZARA

POLO RALPH LAUREN

K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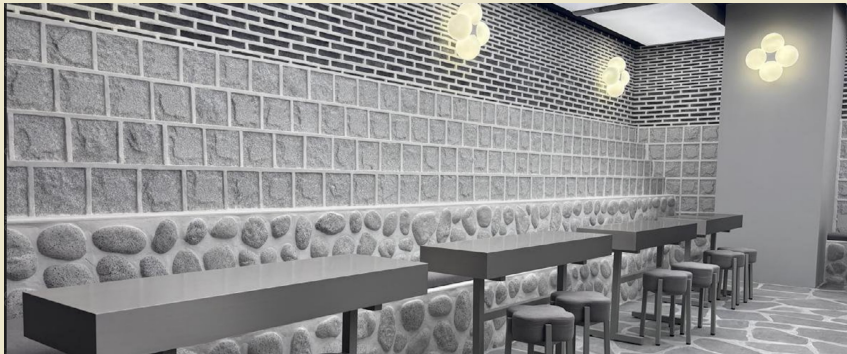
brand



fashion

cafe

1. 자카페 (by ZARA)



스페인 마드리드와 중국 난징에 이어 서울에도 문을 연 자라의 카페로, 매장마다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담아 눈길을 끈다. 마드리드 매장이 네오-무데하르 건축 양식에서 영감을 받아 붉은 벽돌과 섬세한 아치 디테일을 적용했다면, 서울점은 한국 전통 돌담과 궁궐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한국적 감성을 녹였다. 커피는 스페인 WacoCoffee의 스페셜티 원두를 사용하며, 수정과 라떼처럼 한국 전통에서 영감을 받은 메뉴도 만날 수 있다.

📍 서울 중구 명동길 14 눈스퀘어 3층

2. 랄프스 커피 (by POLO RALPH LAUREN)



미국 전통 패션 브랜드 폴로 랄프 로렌이 선보이는 랄프스 커피는 아메리칸 클래식 감성을 그대로 담은 공간이다. 우드 플로어와 브라운 계열의 벽돌, 브라스 장식 등 인테리어부터 메뉴까지 미국의 전통적인 느낌을 살렸다. 입구에서 맞이하는 브랜드 마스코트 곰돌이는 라떼 아트로도 등장하며, 고객에게 친근하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한다. 폴로 랄프 로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눈이 돌아갈만한 굿즈도 잔뜩 판매 중이다.

📍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31

3. 키스 트리츠 (by KITH)



뉴욕 기반 스트리트웨어 브랜드 키스는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로 디저트 바를 선보였다. 매장의 한켠을 장식하는 시리얼 디스펜서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리얼이 들어 있어서, 보는 시각과 미각을 동시에 자극한다. 키스 트리츠 아이스크림은 이미 구성이 정해져 있는 시그니처 스페셜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메뉴가 있다. 개성과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답게 취향을 한껏 존중한 모습이다.

📍 서울 성동구 연무장길 70 1층